

세계 정상들 여객기 참사 깊은 애도…“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

바이든 “필요한 지원 제공”…시진핑·이시바도 위로 전해
獨·英 등 유럽연합, 중남미 국가도 애도 성명과 연대 표명

세계 각국 정상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영부인) 질과 저는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며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

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시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찰스 3세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아내와 나는 무안에서 극심한 인명 피해가 난 끔찍한 항공 사고에 대해 알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이어 “전 국민이 참사를

애도하는 가운데 모든 희생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엑스에서 “대한민국 무안군의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며 “생명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엑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고 데이비드 레미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자국민 2명이 숨진 태국의 파퓰탄 친나와 총리는 엑스에서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으며 외무부에 즉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한국 여객기 사고에 관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삼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가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위로의 메시지를 내 “귀국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을 입은 이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남미 각국 정부도 여객기 참사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페루도 외교부와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일제히 “깊은 위로와 연대”를 표했다. /연합뉴스

‘퇴임 후 더 빛난 美 최장수 대통령’ 지미 카터 100세로 별세

“가장 위대한 전직 美 대통령” 평가
1차 북핵위기 김일성 만나 협상물고
평화중재 활약 노벨평화상 수상도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100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날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에도 실패했지만, 퇴임 후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한반도와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쟁자가 부정선거로 낙마, 극적으로 의원직을 거머쥐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현직인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며 대통령이 됐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0세. 사진은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흔드는 모습. /AP=연합뉴스

재임 기간 대표적 치적으로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상 중재 성공이 꼽힌다.

1978년 9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 협정 체결을 주선했다.

이 역사적인 협정은 이듬해 3월 양국이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조약 체결로 이어져 수십년간 이어져 온 중동 갈등을 막고 중동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80년 대선에서

‘위대한 미국’ 건설을 내건 공화당의 레이건 후보에게 대패해 연임에 실패, 단임 대통령으로 그치게 됐다.

그러나 퇴임 이듬해 세운 카터 센터를 바탕으로 평화·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며 재임 기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나는 전직의 시대를 구가했다.

퇴임 후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퇴임 후인 1994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1차 북핵

위기’ 때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과 담판,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는 등 평화의 사절로 나섰다.

이후 미국인 억류 사안이 불거진 2010년 8월, ‘디 엘터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한 2011년 4월 등 총 3차례 방북을 했다.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다.

이런 공로로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中 ‘경향모’ 076형 강습상륙함 진수

“신형 이·착륙 기술 장착 4만t급…수륙양용장비 탑재 가능”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 이 진수됐다. <사진>

30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수된 쓰촨함(함정 번호 51)이 공식적으로 상하이 조선소 도크에서 나와 외장·보정 작업과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

외장·보정 작업은 함선의 전력 시스템 디버깅과 전자장비 및 무기체계의 설치·디버깅 등이 포함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제조 공장과 쓰촨함 인수 해군 부대가 공동으로 계류 테스트와 해상 시험을 할 예정이다.

CCTV는 “쓰촨함은 (중국어) 독자 개발해 건조한 076형 강습상륙함”이라며 “해군 차세대 강습상륙함으로서 만재 배수량이 4만t에 이고, 이중 섬형 상

부구조와 전체 종방향 비행 갑판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자기식 캐터펄트(이륙용)와 포획(착륙) 기술을 혁신적으로 응용했고,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 수륙양용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으로 ‘LHD(large landing helicopter doc)함’이나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륙작전용 병력·차량 수송선으로 평가된다. 중국군은 그간 075형 강습상륙함을 실전 배치해왔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